제6편 통신·교통 (1894~1944)

범 례

- 동아일보 기사
- 조선일보 기사
- ▲ 황성신문 기사
- ◆ 한국철도사
- ◎ 기타 제자료

여 백

1894. 11. 17

◎ 남도전선중 한성-수원간 재개통⁽¹⁾⁽¹⁾통기 권 42

1895. 8. 1

◎ 한성우체사 수원지사 설치 공고⁽²⁾⁽²⁾농상공 부령 제5호

1895. 8. 7

◎ 올해 8월 10일 부터 수원우체지사 郵務 개시함 공고⁽³⁾⁽³⁾부령 제6호◎ 한성-수원간 우체물 遞送法 제정⁽⁴⁾⁽⁴⁾훈령 제297호

◎ 수원우체지사 우체물 집신, 분전 매일 2회로 정하고 시한은 적당히 하기로 결정

1895. 8. 10

◎ 한성우체사 수원지사 개국⁽⁵⁾⁽⁵⁾농상공 부령 제6호◎ 한성-수원간 우체물 집분, 발착시간 공고⁽⁶⁾⁽⁶⁾발송 오전9시, 귀착 오후 4시 30분.

◎ 수원내에 우체함 3개소 우표매하소 2개소 허가

1895. 9. 28

◎ 漢城郵遞司 水原支司 개국

1896(?) 8. 5

◎ 수원우체사를 2등사로 결정⁽⁷⁾⁽⁷⁾칙령 제42호

1896. 8. 10

◎ 한성우체사 수원지사가 水原郵遞司로 승격

1897. 6. 25

◎ 수원우체사에서 遞夫 서경석이 한성우체사로 遞送도중 수원우체물 9도, 나주우체물 1도, 전주우체물 6도를 증도에 賊漢 만나 분실⁽⁸⁾⁽⁸⁾관보 제710호

1898. 2. 25

◎ 수원우체사 안성지사를 개국⁽⁹⁾⁽⁹⁾농상공 부령 제25호

1902. 4. 28

◆ 경부선 철도 부설로 정조의 용능 거둥길인 지지대를 터널로 뚫으려하자 俞箕煥 철도원 총재가 다케우찌(竹內) 취체역에게 반대 의사 전달

1902. 4. 30

- ◆ 경부선 철도부설 일본 감독이 兪箕煥 철도원 총재에게 지지대 터널의 시공위치가 지지대비⁽¹⁰⁰⁾에서 480피트(英尺)나 떨어져 있어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수원부민이 남문밖에 모여 철도는 지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반대시위

⁽¹⁰⁰⁾ 조선조 제22대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릉원 전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이 고개를 넘으면서 멀리서나마 현릉원이 있는 화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이곳에서 행차를 멈추게 하고 현릉원쪽을 뒤돌아보면서 재운을 마지 않았고, 이곳을 떠나기를 아쉬워하였기 때문에 정조의 행차가 느릿느릿 하였다 하여 '지지대'라 부르게 되었다. 이 비는 순조 7년(1807년)에 건립되었다.

1902. 5. 9

- ◆ 하야시 공사가 다케우찌, 구사 두 취체역을 대동하고 慶運宮으로 高宗에게 알현하고 철도원이 까닭없이 항의하여 철도공사가 지연되오니 자기들 회사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간청하자, 고종이 유기환 총재와 협의하라고 勅指 내려

1902. 6. 1

- ◆ 일본회사가 경부선 부설 공사에 있어 사그내-오산간의 선로를 기공한다는 공문을 철도원에 발송하자, 철도원이 지지대 터널공사에 끝까지 반대하며 경기관찰사 李根命⁽¹⁰¹⁾에게 명하여 사그내-지지대 터널 공사를 엄금하라고 지시

⁽¹⁰¹⁾ 1840~? 조선말기의 대신. 친 일파. 1871년 문과에 급제. 평안도 관찰사, 내무대신 의정부 의정, 영돈령사사 등을 지냈고, 1910년 일제가 강점한 후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1902. 7. 14

- ◆ 철도원 총재에서 외부대신 서리로 영전한 兪箕煥 총재가 철도원에서 조사한 軍山浦에서 四時峴을 넘어 大垆洞⁽¹⁰²⁾ 서둔동을 거쳐 상유천에 이르는 노선으로 옮기는 것을 부락하자 하야시 공사가 수락

⁽¹⁰²⁾ 현 의왕시 활암동 큰 밭(太村)

1902. 11. 8

- ◎ 學部 각 통신원의 요청에 따라 法·美·俄·德·日語學徒 각 1인을 선발, 外遞 사무확장에 대비 수원·공주·은진·홍주우체사에 우체사무 감독차 朴基鴻을 특별 파견한다고 훈령

1903. 5. 8

- ◎ 수원의 司長代辦 광무 6년(1902)에 있어서의 우표 算定法 未盡繕報한 탓으로 견책

1903. 6. 8

- ◎ 한성-수원간 전신 개통⁽¹⁰³⁾

⁽¹⁰³⁾ 통신원령 제6호

1903. 7. 21

- ⊙ 공주우체사 全義, 木川은 종전대로 임시 우체에 편입하고, 공주-수원간은 大路로 직행토록 요청

1903. 8. 1

- ⊙ 수원-일본 우편수취소를 경기도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에 설치⁽¹⁴⁾

⁽¹⁴⁾ 수원역전 우체국

1904. 5. 9

- ⊙ 일본군의 강요로 수원 등 13개 電線보수비 100,914元의 지출을 결정

1905. 4. 29

- ⊙ 在韓國 일본의 우편국 취급사무를 수원우편국에 실시⁽¹⁵⁾
- ⊙ 수원전신 취급소에서 日文電報 실시⁽¹⁶⁾

⁽¹⁵⁾ 성고시 제205호⁽¹⁶⁾ 성고시 제206호

1905. 5. 1

- ◆ 서울-초량간 철도운수 영업 개시

1905. 6. 1

- ⊙ 오산 우편수취소에서 우편 저금 및 집배사무 취급⁽¹⁷⁾

⁽¹⁷⁾ 성고시 제278호

1905. 6. 12

- ⊙ 경성우체국 수원출장소에서 日文전보 실시⁽¹⁸⁾
- ⊙ 수원 임시 우체소 설치⁽¹⁹⁾
- ⊙ 남양 임시 우체소를 경기도 남양군 음덕리면 중동 설치⁽²⁰⁾
- ⊙ 수원 전보, 우체사가 경성우편국 수원부 출장소 인도⁽²¹⁾

⁽¹⁸⁾ 성고시 제206호⁽¹⁹⁾ 성고시 제442호⁽²⁰⁾ 성고시 제442호⁽²¹⁾ 성고시 제331호

1905. 7. 1

- ⊙ 경성우체국 수원출장소와 영등포 전화소 및 용산 전화소 간에 전화 통화 개시⁽²²⁾
- ⊙ 수원 우편국에서 전신 및 특설전화 교환전화 통화사무 취급
- ⊙ 수원우편국을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에 설치⁽²³⁾
- ⊙ 수원성외(城外) 우편 수취소를 수원역전 우편수취소로 개칭⁽²⁴⁾

⁽²²⁾ 성고시 제348호⁽²³⁾ 통감고시 제37호⁽²⁴⁾ 통감고시 제39호

1906. 9. 11

- ⊙ 영등포, 용산 우편 전신 수취소 및 수원 우편국에서 전선

- ⁽⁹⁶⁾통감고시 제95호 탁송 전보 업무 취급⁽²⁵⁾
1906. 10. 1
- ⁽⁹⁷⁾통감고시 제99호 ⊙ 수원우편국, 남양 우편취급소에서 한국 국고금 사무 취급⁽²⁶⁾
1906. 11. 30
- ⁽⁹⁸⁾통감고시 제105호 ⊙ 남양 임시 우체소를 폐지하고, 12월 1일 우체소에 승계⁽²⁷⁾
- ⁽⁹⁹⁾통감고시 제101호 ⊙ 남양 우편 취급소를 경기도 남양군 남양읍에 설치⁽²⁸⁾
1906. 12. 1
- ⁽¹⁰⁰⁾통감고시 제110호 ⊙ 수원성의 우편수취소에서 우편물의 집배 사무 취급⁽²⁹⁾
1907. 3. 31
- ⁽¹⁰¹⁾통감고시 제31호 ⊙ 水原停車場前 우편 전신 수취소, 오산 우편 전신 수취소를 각각 폐지하고, 4월 1일 우편소에서 승계⁽³⁰⁾
1907. 4. 1
- ⁽¹⁰²⁾통감고시 제30호 ⊙ 水原停車場前 우편소를 경기도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에 설치⁽³¹⁾
- ⁽¹⁰³⁾통감고시 제30호 ⊙ 오산 우편소를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에 설치⁽³²⁾
1907. 5. 31
- ⁽¹⁰⁴⁾통감고시 제75호 ⊙ 수원우체소 폐지하고 우편국 설치⁽³³⁾
1907. 9. 1
- ⁽¹⁰⁵⁾통감고시 제110호 ⊙ 水原停車場前 우편소에서 전신 및 전화통화를 취급하였으나, 언문 전보는 취급치 않고 수원 등 9개 우표소간에 전화사무 취급⁽³⁴⁾하기로
1907. 12. 1
- ⁽¹⁰⁶⁾통감고시 제141호 ⊙ 수원우편국에서 군인, 군속 및 통상위체 사무 취급⁽³⁵⁾
1908. 2. 9
- ⊙ 수원-인천간 시외전화
- 경성(서울):呼出數 6, 呼出料 90전, 料金 1원 20전
 - 수원:呼出數 4, 呼出料 60전, 料金 80전, 料金計 1원 40전
1908. 4. 1
- ⊙ 서울-수원간 식당열차 시운전

¹⁹⁰철도 관리국에서는 副統監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을 ¹⁹⁰경성일보 1908년 4월 1일 비롯한 고등관, 한국측의 대관을 초청하여 同局이 새로 만든 식당열차의 시운전을 가진 바 있었다

이 열차는 日露戰爭 때 소련으로 부터 노획한 철도로 만들고 그 설비와 내장을 갖춘 것이었다. 내빈 일동은 남대문 정거장¹⁹¹에 모였고, 열차는 상오 10시 정각에 출발했다. 차중에서는 오찬의 향응이 있었고, 내빈들은 沿路의 풍물을 관망하면서 수원역에 당도했다 ¹⁹¹현 서울역

수원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운동장에서는 각종 운동경기가 벌어졌다. 이후 차중에서는 프랑스요리가 나왔고, 접대는 운동부장 오까(岡), 사무관 무라세끼(村瀬)와 그 밖의 여럿이 맡았다. 술 시중은 기생이 맡는 등 극진한 환대가 있었다

수원을 출발하여 남대문 정거장에 돌아왔을 때의 시간은 하오 3시 15분 이었다. 수원 정거장에서는 국기를 게양하고, 球燈을 매어다는등 일행을 위해 뜨거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08. 5. 1

◎ 수원역전 우편소에서 언문전보 취급¹⁹⁰ ¹⁹⁰통감고시 제4호

1908. 7. 31

◎ 수원 우편국의 한국 국고금 출납사무 폐지¹⁹⁰ ¹⁹⁰통감고시 제106호

1908. 10. 1

◎ 전화규칙이 제정되어 가입 및 가입구역 제도와 통화 및 통화구역제도, 호출 및 호출구역제도가 매 최초로 정비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되다. (수원지방만 기재)

- 시외통화 및 호출요금
- 경성(서울)-수원(매산리 포함) 20전, 호출요금 10전
- 인천-수원(매산리 포함) 20전, 호출요금 10전
- 용산-수원(매산리 포함) 20전, 호출요금 10전
- 영등포-수원 20전, 호출요금 10전
- 수원(매산리 포함)마포 20전, 호출요금 10전
- 수원(매산리 포함)천안 30전, 호출요금 15전
- 수원(매산리 포함)성환 20전, 호출요금 10전
- 수원(매산리 포함)온천리 30전, 호출요금 15전
- 수원(매산리 포함)연안 50전, 호출요금 25전
- 수원(매산리 포함)해주 60전, 호출요금 30전

- 수원(매산리 포함)춘천 40전, 호출요금 20전
- 직산 금광-수원(매산리 포함) 30전, 호출요금 15전
- 평양-수원(매산리 포함) 80전, 호출요금 80전

1909. 2. 1

- ◎ 수원-온천리간에 1구간의 시외전화선 증설

1909. 5. 8

- ◎ 수원우편국에서 수입인지 매판 취급

1909. 9. 1

¹⁴⁰⁾통감고시 제79호

- ◎ 수원역전 우편소에서 장거리 전화통화 취급¹⁴⁰⁾

1910. 1. 17

- ▲ 수원우편물 交換數

1910. 3. 21

¹⁴¹⁾통감고시 제27호

- ◎ 남양우편 취급소를 우편전신 취급소로 개칭¹⁴¹⁾

1910. 11. 30

- ◎ 수원우편국에서 군인, 군속의 진출, 통상위체 사무 폐지

1911. 12. 1

- ◎ 수원우편국의 특설전화를 보통전화로 변경

1912. 12. 11

¹⁴²⁾고시 제116호

- ◎ 오산우편소에서 전신 및 전화통화 사무 취급¹⁴²⁾

1918. 11. 11

¹⁴³⁾고시 제262호

- ◎ 남양우편국에서 전신 및 전화통화 사무 취급¹⁴³⁾

1920. 3. 16

¹⁴⁴⁾고시 제60호

- ◎ 발안우편소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에 설치¹⁴⁴⁾

1920. 4. 1

¹⁴⁵⁾고시 제96호

- ◎ 특설 전화 제도의 폐지로 수원의 지급 개통제의 전화가 설 요금 100원¹⁴⁵⁾으로 결정

1921.

◎ 경성-수원간의 1구간의 시외전화 전화선 증설

1921. 10. 7

■ 수원-천안간 전화선 증설

1921. 11. 5

◎ 수원 우편국에서 절수별납 우편물 취급⁽⁴⁶⁾

⁽⁴⁶⁾고시 제230호.

1923. 2. 2

■ 오산역 客年업적(평택)

1924. 4. 18

■ 客月 水原驛況

1924. 6. 3

■ 수원-마산선의 구내 修道공사 입찰

1924. 12. 10

◎ 1924년 12월 현재 수원의 시외통화는 1일 평균 통화수가 발신 46건에, 착신 62건

1925. 3. 9

◎ 수원에 治道

1926. 1. 30

■ 수원-강릉간 철도 促成⁽⁴⁷⁾, 원주서 시민대회

⁽⁴⁷⁾재촉하여 빨리 이루어지게 함.

1926. 5. 16

■ 친목회 창립, 자동차 운전수(수원)

1927. 1. 14

■ 수원 정거장 근처부터 日人이 蠶食, 大悟를 要할 우리(전 10회) 산업계

1927. 1. 17

■ 동아일보 수원지국 위치 변경하고 電話개설

1927. 1. 20

■ 水仁道路 개선과 京仁차량 증설 요망, 道당국과 철도국에

요망, 인천상의 회의 결의

1927. 6. 13

- 1만원 예산으로 수원역 신축, 순 조선식으로 설계

1927. 6. 21

- ◎ 발안시장은 발안우편소와 향남면장의 협조로 1927년 7월 부터 전화 가설기로 결정

1927. 7. 15

- 수원-발안-안중간 자동차 운전개시

1927. 12. 12

- 수원역 업적

1928. 3. 16

- ◎ 발안우편소에서 전신 및 전화통화 사무 취급⁽⁴⁸⁾

1928. 4. 2

- 고적 많은 정거장 조선식으로 건축, 수원 새 정거장은 7 월에 준공, 철도국의 새 설계

1928. 6. 7

- 수원운합의 폐해,⁽⁴⁹⁾ 小荷主에게 尤甚

⁽⁵⁰⁾ 水原驛前에 널려 있었던 7-8개 처의 運送店들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運合)조치에 따라 <株式會社 水原合同運送店>을 설립했다. 그런데 운합이 되면서 영업태도가 일변, 大荷主에게만 친절하고 小荷主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친절하다 하여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행패의 일례로서는 화물 수탁료를 종전의 배 값을 받는가하면, 도착된 화물 배달을 까닭없이 늦추고 있어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불만을 품은 소하주들이 합자해서 새로운 운송점을 만들려는 氣運이 감돌고 있었다

1928. 6. 21

- 水原 道路共進會 시상식도 거행

1928. 8. 27

⁽⁴⁸⁾ 고시 제82호

⁽⁴⁹⁾ 수원역전에 있던 7~8개처의 운송점이 「주식회사 수원합동운송점」을 설치했는데 그후 대하주에게만 친절하고 소하주에게는 불친절하다 하여 반발하고, 이를 소하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송점을 조직하려는 기운이 있었다.

⁽⁵⁰⁾ 동아일보 1928년 6월 7일

- 조선 고대식으로 신축한 수원역 (寫)
- 수원역 낙성, 순조선식으로 내일부터 개통

1928. 9. 1

- 수원역 준공⁽⁵¹⁾

⁽⁵¹⁾ 총건립 177평, 공사비 28,000여 원. 역사는 벽돌단층에 한식 기와집으로서 외관은 순한식. 내부 대합실 천장은 목기천장으로 문양을 넣었으며, 채색도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공물성 도료를 사용하였다.

1928. 9. 2

- 수원역 낙성식

1928. 10. 31

- 수원에도 버스 1區 15전

1928. 12. 6

- 수원 버스 개통, 지난 2일 부터 시운전

⁽⁵²⁾ 1928년 12월 2일부터 수원에 시내버스가 등장했다. 수원시내 자동차 합작회사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운영을 추진해 왔는데, 12월 1일 18인승 버스가 당도하여 즉각 운영을 개시하게 된 것. 따라서 종전의 定期車를 폐지하고 1구간 15전씩의 요금을 받고 북문-수원역간, 수원역-勸業模範場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로써 매일 수원역을 거쳐가는 1000여명의 왕래객을 무난히 수송하게 되었다. 수원 運合會社분규, 사원과 중역대립 임시주주총회에서

⁽⁵²⁾ 동아일보 1928년 12월 6일

1928. 12. 15

- 水原運合 사원과 중역대립 임시주주총회에서⁽⁵³⁾

⁽⁵³⁾ 수원합동운송회사는 1928년 12월 11일 수원역전구락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이날 사원과 중역간에 회사 조직문제로 심장이름 붙인것, 사건의 발달은 중역이 사원을 견제하기로 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주주는 감소되고, 일인 주주는 늘어 회사 실권이 일인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9. 1. 6

- ◎ 水原荷主運送組合 창립총회 개최

1929. 1. 8

- 水原荷主運送組合 창립총회 경과 상황, 정관 통과와 인선 기타

1929. 1. 9

- 水原荷主運送組合 합동운수조합에 불편하여 조선인 하주 결속으로 창립

1929. 1. 10

■ 水原荷主運送組合 창립되자 철도국 측에서 적극반대

1929. 1. 13

● 水原荷主運送組合을 철도국이 중지 요구, 一驛一店을 실시중이라고, 조합편은 지지 주장

1929. 1. 14

■ 水原荷運組에 반대운동 명렬, 철도국측에서 兩社不合, 運合과 老舖料 철도국 고려중

1929. 1. 23

■ 水原荷運組合 까다로운 감독앞에 去20日부터 개업

1929. 4. 29

■ 경동철도 문제로 시민대회 개최! 水原實業定期會

1929. 4(?) 30

■ 북문밖으로 경동철도역 운동, 수원주민들이

1929. 7. 14

■ 동아일보 수원지국 電話신설 口座변경

1929. 9. 9

■ 오산-발안간 자동차 개통

1929. 10. 6

■ 수원 버스 운임을 인하, 일구 10전씩

1929. 12. 21

■ 水原雨雪로 電信線 不通

1930. 3. 26

■ 京東鐵 停車場 문제 수원시민대회, 수원에 두지않겠다 함으로 철도당국의 태도 주목

1930. 9. 15

■ 수원-인천간 승합자동차 10월 1일 개통

1930. 10. 3

- 수원버스가 솔선 구역제도 철폐, 두구이든 것을 1區로 동시에 임금도 인하

1930. 10. 7

- 대구-수원간 통화

1930. 11. 22

- 수원역 주최 경성전학단

1930. 11. 28

- 京東線 궤도 개수 卅日에 개통식, 수원역에서 개통한다고, 당일은 일반이 시승

1930. 11. 30

- 경동선 개통, 수원과 이천간

1930. 12. 17

- 경동철도 가솔린차 충돌은 횡단도로에 守直없는 탓 일반의 불안은 尤甚(수원)

1931. 1. 23

- 주요도시 순회좌담(수원편)
⑥교통문제 시가 정거지 필요

1931. 3. 18

- 수원-경성간 버스도 개통¹⁵⁰

¹⁵⁰인기는 1930년 가을에 되었다.

1931. 6. 12

- 군포장¹⁵¹-반월장간 승차 자동차 개통(시흥)

¹⁵¹현 안양시 호계동 구군포 사거리 부근.

1931. 12. 1

- 수원-여주 우편노선 연장 결정
- 수여선 개통¹⁵²

¹⁵²수인선과 함께 전국유일의 협궤열차였던 수여선은 1946년 5월 1일 국유화 되었다가 1972년 7월 마침내 폐선되었다.

1932. 5. 1

- 수원역전 우편국 명승고적 일부인 사용

1932. 7. 29

■ 경동철도의 무책임

¹⁰⁰ 동아일보 1932년 7월 29일.

¹⁰¹ 경동철도는 교통기관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한지 2期年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간 연착이 不絶하다. 최초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기타 不備한 점이 있는것도 容或無怪나 장구한 시일을 허비한 昨今에는 遺漏의 嘆이 없을 만치 制限설비도 정돈되었을 것이며 기타 규칙엄수에도 완전무결하게 진행될 줄 믿는 바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을 본다면 延發着은 물론 休止하는 사례까지 있으니 그 무책임을 언제까지 감행할 것이나

1932. 10. 15

■ 경성-수원간 기동차 2왕복 증운전

1932. 11. 29

■ 오산-발안간 자동차 개통

1932. 12. 2

■ 인천-수원간에 직통전화 설치

1933. 2. 16

¹⁰² 고시 제51호.

◎ 남양 전신취급소를 철도 정거장에 설치¹⁰³

1933. 6. 12

■ 봉담(?)行 增發, 화성자동차부에서 (오산)

1933. 9. 21

■ 허위 전보로 悲喜劇연출 군포역전에서, 수원군 반월면장 沈玄澤씨에게 서울 아들 죽었다고(시흥)

1934. 3. 26

■ 京仁버스 확장

1934. 8. 1

■ 오산자동차 불통, 장마로 도로 파괴되어

1934. 11. 21

■ 수원역에서 지하도 기공

1935. 2. 10

- ◎ 華城 自動車 株式會社 제6회 정기총회 역전 태흥루에서 개최

1935. 4. 9

- 全朝鮮 八處에 시내 전화교환 오산 ……

1935. 7. 4

- 경부선 6시간 주파 超速車, 기적 울자 용산이오 30분에 수원역, 대전·대구에서 물만 마시고 부산으로 돌진

1935. 7. 6

- 오산시내 전화
- ◎ 오산우편소에서 전화교환 업무 취급⁽⁹⁰⁾ (90) 고시 제373호

1935. 7. 7

- 본(동아일보)지국 전화가설(전화7번)

1935. 9. 23

- 수인선 철도 부설허가

1935. 10. 1

- 여주·용인·이천을 관통할 수원-인천간 新鐵道 畿甸 산 물이 인천 出浦에 편익 130만원으로 년내에 기공
- ◎ 남양 우체국에서 전신·전화 통화 사무 및 전화 교환 업무 취급⁽⁹⁰⁾ (90) 고시 제529호

1936(?).

- 盟罷 원만해결 경찰 알선으로 수원자동차 주식회사 파업사건(수원)

1936. 2. 6

- ◎ 조암 우편소를 설치하였으나 우편집배 사무는 취급⁽⁹¹⁾하지 않기로 (91) 고시 제44호

1936. 3. 10

- ◎ 화성자동차회사에서 수원-서신간에 정기버스 운행하기 시작

1936. 4. 11

■ 금번 호우로 京水 교통 두절(수원)

1936. 5. 16

■ 水仁線 기공식 거행⁽⁶²⁾

⁽⁶²⁾ 당시 돈 250만원의 예산으로 기공식. 이 철도는 강원도 백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으로 수송하는 동시에 군자·소래·남동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오지에 수송하기 위해 부설되었다. 그뒤 1995년 12월 31일 12시를 기해 폐선되었다.

1936. 5. 22

■ 水仁鐵道 25일 입찰

1936. 6. 22

■ 水原-軍浦場간 復線 不遠 完了

1936. 11. 7

◎ 조선운송회 경성지부 평의회가 수원역전 조선운송회 수원출장소에서 개최

1936. 11. 20

■ 京東鐵道⁽⁶³⁾ 拂込 公約 무시라고 분개

⁽⁶³⁾ 본사는 수원. 사장은 田川常治郎. 수원역을 기점으로 인천-여주에 이르는 73.4Km와 수원-인천간 54Km의 영업권을 가졌었다. 원주-여주구간에 화물자동차와 여주 흥호리 구간에 軌道도 자랑했다. (동아일보 1936년 11월 20일)

경동철도 제2회 株金불입문제는 지난번 인천측 株募集委員會에서 議論이 비등하여 하는 수 없이 인천측 주주의 의향을 집약하기 위해 17일 하오 7시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요시다(吉田), 이마무라(今村) 양 중역위원을 비롯 在仁 株主가 參集하여 신중히 협의했지만, 이번 회사측의 조치에 대하여는 仁川府民과 주주와의 공약을 무시한것이라고 격분했다. 在仁 주주들은 차제에 제2회 拂込을 절대 취소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뿐만아니라 제2회 불입기일을 1937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도록 교섭할것을 일임하고 3.4차 불입에 대하여도 인천측 주주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편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산회했다

1936. 11. 26

◎ 京東鐵道 水仁線 경제가치 의문시

⁽⁶⁴⁾ 조선상공신문 1936년 11월 26일

⁽⁶⁴⁾ 수인선 건설공사는 조만간에 착공, 1937년 4월 경에는 개통할 모양이나 同線은 과연 經濟線의 가치가 있는지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오직 여주 방향의 미곡을 인천항으로 集貨시킬 모양

인데 물자관계에서 약간의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승객의
예상은 전혀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불안 材料의 각테일 탓으로 同社의 주식은 五
圓불입의 것이 겨우 二圓七〇전이라고 하는 大慘落을 보
여 조선 철도계의 최저가를 示現하기에 이르렀다

1937. 2. 19

● 京東의 水仁鐵道 암초에 부딪치다

1937. 2. 26

■ 수인철도의 경제가치 기대되지 않는다

1937. 5. 9

◎ 1937. 4월중에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대형자동차 71대,
소형자동차 26대

1937. 6. 12

■ 수인선 개통 7월부터 개업

1937. 7. 2

■ 수인철도 2일 개통(仁川)

1937. 7. 3

■ 自動車 怠業 확대

⁽⁶⁶⁾물가안등으로 생활고가 예상된다 하여 수당까지 지급 한 바 있었던 수원자동차 회사가 느닷없이 2명의 운전수와 1명의 차장을 해고하는 바람에 업주와 종업원이 정면 대립하는 怠業사태가 일어났다

1937년 7월3일 회사측이 朝會 석상에서 운전수 2명과 차장 1명의 해고를 발표하자 종업원들이 들고 일어나 일 시 소동을 피웠다……

⁽⁶⁷⁾ 동아일보 1937년 7월 3일.

1937. 7. 9

■ 수원 자동차의 종업원 동요 怠業 선언

■ 자동차 怠業확대. 쌍방 태도가 악화, 쌍방간의 주장함이 서로 달라, 水原署 사태를 주시

■ 수인철도 개통 축하

1937. 7. 11

■ 수원자동차 怠業 경찰 압선으로 해결

1937. 8. 6

◎ 수인선 개통

1937. 8. 7

■ 수원-인천간 철도 금일부터 운수 개통, 서해안 간척지로 횡단

1937. 10. 10

■ 京釜 既成 復線에 일부는 일차 운전, 사상-구포간, 수원-군포간

1938. 3. 9

■ 경동 철도회사에서 종업원 급료 인상 (수원)

1938. 4. 22

◎ 私鐵의 狹軌線을 全部 廣軌로

1938. 9. 13

■ 경부선 복선공사 京水간은 來月개통

1938. 10. 19

■ 경성-수원-인천-안양 통행도로 공사 착수 元谷驛⁽⁶⁶⁾에서 통행도로가 없어

⁽⁶⁶⁾ 안산시 신길동(?)에 있었던 역. 현 안산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지점에 있었다.

1938. 12. 3

◎ 조암우편소에서 전신 및 전화통화 사무 취급⁽⁶⁷⁾

⁽⁶⁷⁾ 고시 제944호.

1938. 12. 6

■ 朝岩리에 전화 개통 (수원)

1939. 2. 18

■ 수원 사강 우편소 전화 통화 사무

1939. 2. 20

◎ 오늘부터 사강우편소에서 전신 전화 사무 취급

1939. 2. 28

■ 대전-수원 복선 4월 1일 개통

1939. 3. 2

■ 다년간 현안중에 있는 경성-남양간 線路 개수 ……

1939. 4. 14

■ 승객 취급 不一로 京水 버스에 불평 (수원)

1939. 4. 15

■ 京水 버스의 불평 당업자 견해와 상반 (수원)

1939. 5. 16

◎ 수원 우편국에서 조선 간이 생명보험 사무를 취급⁽⁶⁶⁾ (66) 고시 제421호.

1939. 7. 31

◎ 수원역전 우편소 폐지하고 수원 우편국에서 송계⁽⁶⁷⁾ (67) 고시 제572호.

1939. 8. 18

◎ 남양우편국에서 朝鮮簡易生命保險 사무 취급⁽⁷⁰⁾ (70) 고시 제659호.

1939. 8.

◎ 수원·오산지방의 전화시설요금 180원으로⁽⁷¹⁾ (71) 부령 제145호.

1939. 9. 2

■ 6천 5백원으로 鋪裝도로 공사 실시 (수원)

1939. 10. 31

■ 水原 旱害 구제를 목표 각 도로공사 착수, 30만원을 各面에 분배

1939. 12. 3

◆ 多數要望에 驛長도 얼떨떨

⁽⁷²⁾ 1939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運送強調週間〉 앞두고 수원역전에 있는 곡물회관에서 여관업자·構內영업자·小運送業者·貨主·邑內有志·통신관계자 등이 수원역장과 철도사무소 관계관을 조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었다. …… ⁽⁷³⁾ 동아일보 1939년 12월 3일.

1939. 12. 20
 ■ 수원-화성 버스 각처에 정거장 설치⁽⁷³⁾
- ⁽⁷³⁾ 화성자동차 주식회사가 전시하의 연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했다.
1939. 12. 29
 ■ 오산-안성간 도로공사 준공
1940. 2. 29
 ■旱害 구제 사업으로 도로공사 착수, 수원역에서 本町까지
1940. 3. 10
 ■ 수원읍에도 공중전화 설치⁽⁷⁴⁾
- ⁽⁷⁴⁾ 개통일: 1940년 4월 1일
1940. 3. 28
 ■ 수원역 확장⁽⁷⁵⁾
- ⁽⁷⁵⁾ 공사비 8만여원을 들여 지하도를 새로 만들었고, 승강장 넓히는 공사를 했다.
1940. 4. 19
 ■ 수원 松原 운송회사 창립코져 활동
1940. 5. 7
 ■ 오산-안성간의 자동차 개통 요망
1940. 6. 15
 ■ 수원-鉢山간 버스에 일반의 불평 漸高
1940. 7. 6
 ■ 水原各地 교통 두절
1940. 7. 11
 ◎ 수원우체국에서 간이보험가입자 위해 진료소 설치 준비
1940. 7. 16
 ■ 水原에 洪水禍 도로교통 등 유실
1940. 7. 27
 ■ 수원역-本町 도로공사 착수
1940. 8. 4
 ■ 수원읍의 발전책으로 시설정비 촉진 진정, 읍의원이 체신국 爲始 各方面에

1940. 8. 8

■ 수원화성 자동차, 남양-발안 개통

1941. 2. 6

■ 京城 水原間 버스

¹⁰⁾ 된다된다면서 소문만 요란할뿐 실현을 보지 못하던 <京水 自動車>의 영업권 이전이 드디어 낙착, 1941년 2월 4일부터 일체의 영업권을 <京東鐵道會社>가 讓受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이 문제가 난항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타결하게 된 동기는 統制경제의 물결을 탔기 때문이다. 경동철도측에 영업권이 이양됨에 따라 종래와 같은 차량 고장이 감소되고, 부정확하던 發着시간도 크게 개선될 것이 예상됐다. 따라서 지방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될뿐더러 京水間의 교통이 원활해져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당시의 경수간 버스 발착 시간은 다음과 같다

¹⁰⁾ 동아일보 1941년 2월 6일.

- 發車: 9시, 11시, 13시, 17시, 19시
- 到着: 10시 20분, 12시 20분, 14시 20분, 16시 20분, 18시 20분

1941. 4.

◎ 수여선과 수인선의 사철회사인 경동철도가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京水自動車株式會社 매수

1944. 1.

◎ 水原郡 牛馬車運搬統制聯合會 설립

1944. 4.

- ◎ 화물자동차 통합에 따라 마루호시와 경인트럭 출장소가 수원출장소 영업 개시
- ◎ 신설 예정인 경기도 여객자동차회사가 경동자동차주식회사 산하의 화성중앙시장내 자동차 회사 흡수

참고문헌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기사색인집』
(1920~1940), 1980
-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
(1920~1940), 1986
-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신보』
- 경성일보사, 『경성일보』
- 조선상공신문사, 『조선상공신문』
- 수원군, 『수원군 읍지』, 1899
- 남양군, 『남양군 읍지』, 고종조
- 통감부, 『제1차 통감부 통계연보』, 1906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 1910~1944
-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1944
- ———, 『생활상태조사(기-1)』, 수원군,
1929
- ———, 『조선철도사』, 1929
- ———, 『조선 국세조사 보고』, 1934
- ———, 『조선 국세조사서』, 1939
- ———, 『철도 요람』, 1937
- ———, 『조선의 체신사업』, 1937
- ———, 『조선 체신사업 연혁사』, 1938
- ———, 『조선 철도 40년사』, 1940
- 경동철도강습회, 『철도여객소화물운임산출표』,
1927
- 조선전기협회, 『전기사업요람』, 1936
- 경성일보사, 『조선연감』, 1943
- 교통부, 『교통 50년 약사』, 1949
- ———, 교통부, 『한국교통 60년약사』, 1975
- 진기홍, 『구한국시대의 우표와 우정』, 경문각,
1964
- ———, 『한국체신사』, 『한국문화사대계 Ⅱ』,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8
- ———, 외 『한국 우표 90년』, 대한우표회,
1974
- 체신부, 『전기통신사업 80년사』, 1966
- ———, 『한국 우정사』, 1970
- ———,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사』, 1970
- ———, 『대한민국 체신연혁』, 1971
- 윤건모, 『한국자동차 70년사』, 1975
- 철도청, 『한국 철도사』, 1977~1979
- ———, 『한국전기통신 100년사』, 1985
- 수원시사편집위원회, 『수원시사』, 1986
-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 이승언, 『수원현대자료일지(체신교통편)』,
『수원문화』6, 1986
- 이창식, 『일제하의 수여·수인선의 철도고』,
『기전문화』3, 1988
- ———, 『한말경부철도의 이면사 발굴』,
『기전문화』10, 1992
- 이진호, 『경인·경부철도사』, 『기전문화』6, 1989
- 이재재, 『우리나라 역제와 기전지방역참고』,
『기전문화』6, 1989.